

#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158.6	15.7	103,500	-4.2	6.6	-15.5	7.9	72.1	34.6	0.5	0.5
현대중공업지주	6,058.6	20.6	372,000	-1.2	5.2	-13.8	-2.4	5.0	4.2	0.7	0.6
현대일렉트릭	656.2	4.7	64,300	3.0	8.6	-30.6	-43.6	6.1	5.3	0.5	0.5
현대건설기계	1,224.7	8.8	124,000	0.0	2.9	-30.3	-26.6	7.9	5.8	0.9	0.8
삼성중공업	4,145.4	17.0	6,580	-1.5	2.0	-14.1	-1.7	41.5	20.6	0.4	0.4
대우조선해양	2,765.9	6.4	25,800	2.0	2.0	-2.5	85.6	73	104	0.8	0.7
현대미포조선	1,786.0	10.6	89,300	-5.1	7.6	-7.3	13.5	19.3	13.9	0.7	0.6
한진중공업	264.6	6.6	2,495	-5.3	-14.3	-28.5	-24.6	50.2	12.5	0.4	0.4
현대엘리베이터	2,770.1	21.1	102,000	0.5	24.8	-6.0	87.5	18.0	17.5	2.5	22
두산밥캣	3,453.6	25.6	34,450	0.4	12.2	7.4	-2.5	12.6	11.9	1.0	0.9
현대로템	2,550.0	3.7	30,000	7.1	14.9	-11.4	60.0	38.7	26.4	1.7	1.6
하이록코리아	310.4	48.9	22,800	-0.9	-3.0	-21.4	1.3	103	9.4	0.9	0.8
성광밴드	296.0	16.2	10,350	-4.2	-5.9	-24.2	3.7	914.9	37.1	0.7	0.6
태apan	312.7	12.8	11,800	-3.7	4.9	-17.8	-2.1	70.5	34.4	0.7	0.7
두산중공업	1,716.2	14.6	14,650	0.0	3.2	-28.4	-4.6	25.3	9.7	0.5	0.5
두산인프라코어	2,035.7	19.1	9,780	-0.2	3.1	-11.1	12.5	6.5	6.0	1.1	0.9
두산엔진	116.0	4.0	3,520	0.0	-11.9	-28.8	37.0	-6.7	-8.4	0.2	0.2
한국항공우주산업	3,713.8	14.0	38,100	-0.5	0.9	-14.1	-19.7	31.1	22.6	3.1	2.8
한화테크윈	1,199.5	11.1	23,050	-1.9	0.0	-18.0	-35.2	30.1	16.4	0.6	0.5
LIG넥스원	685.3	9.2	31,150	-3.4	-11.3	-27.5	-47.9	20.3	11.5	1.1	1.0
태웅	295.1	4.6	14,750	1.4	1.4	-27.9	-23.8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78.4	4.0	6,610	-2.9	6.3	-9.0	30.9	-34.0	17.7	2.3	2.1
한국카본	247.9	12.3	5,640	-1.6	-3.9	-13.4	5.2	41.6	17.4	0.8	0.8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표 및 차트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Maran Gas switches FSRU newbuilding to LNG carrier

그리스 선사 Maran Gas는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했던 FSRU 2척 중 1척을 LNG 선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짐. Maran Gas는 용선계약 없이 투기 목적으로 FSRU 2척을 발주했고, 발주 계약에는 LNG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됐다고 예상됨. 용선주 확보가 어려워 전환했을 가능성이 있음. (TradeWinds)

### KAI·록히드마틴, 美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최종제안서' 제출

한국항공우주는 컨소시엄 파트너 록히드마틴이 지난 13일 미국 공군으로부터 최종수정제안(FPR)을 접수해 15일 최종제안서(BAFO)를 제출했다고 밝힘. APT는 노후 훈련기 350대를 새 고등훈련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60억달러(약 17조 원) 규모 사업이며 2025년 이후 최대 100조원으로 확장될 전망임. (머니투데이)

###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3년차 임금 협상, 책임져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2016~18년까지 3년째 합의를 못하고 있는 임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면서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힘. 노동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측과 60여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2017년 5월 크레인 전도 사고 등 경영 악화로 협상을 중단하던 상황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 신조 VLCC에 스크러버 장착 시 선가 300만불 상승

해운컨설팅업체 Drewry는 VLCC를 발주할 때 스크러버를 장착하면 선가가 3백 만달러 상승한다고 주장함. 또 기존 VLCC에 스크러버 장착을 결정하면 4~4.5백 만달러가 소요된다고 설명함. Drewry는 다만 스크러버 장착에 대한 투자금은 운항 첫해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분석함. (EBN)

### Mozambique LNG reassesses yards and shipowners

LNG선 16척 발주를 앞둔 Mozambique LNG 프로젝트는 최근 해운사와 조선사를 재평가했다고 알려짐. 2016년 진행된 PQ(사전심사)에 포함된 조선사는 국내 조선 3사와 일본 Mitsubishi, Kawasaki 조선소로 알려짐. 발주에 앞서 실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10월 초까지 마무리될 전망임. (TradeWinds)

### Evergreen Marine to charter 36 feeder ships

컨테이너선사 Evergreen은 36척 Feeder 컨테이너선을 용선하기로 확정했다고 알려짐. 2,500TEU급 14척과 1,800TEU급 24척 용선할 계획이며, 총 발주규모는 10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임. 지난 7월 보도에 따르면 Evergreen은 한국, 중국, 일본 조선사와 발주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알려짐. (TradeWinds)

### Compliant fuel, not scrubbers, chief choice for IMO 2020

UBS은행이 최근 벌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IMO 2020 규정 이행 방안으로 글로벌 선대 2%만 스크러버를 장착할 전망임. 설문조사 결과, 저유황유 사용을 선택한 선주가 전체 응답자의 68%이며, 스크러버는 21%에 불과했음. 또 9%는 종고선을 판 후 신조 발주를 한다고 답변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 대우조선, 저압엔진용 LNG완전재액화시스템 적용한 선박 건조 성공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로 LNG 운송 과정에서 자연 증발하는 가스 100%를 재액화하는 완전재액화 시스템을 적용한 저압엔진 추진 LNG운반선을 건조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일본 MOL에 인도되었고, 완전재액화 시스템을 통해 최대 100억원치의 LNG 손실을 매년 줄일 전망임. (매일경제)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8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8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0.1%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8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습니다를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